

러시아 4일 여행이 29만9000원

하나투어 동춘웨리 이용 상품 출시

“러시아여행을 3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없다?” – 정답은 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동방의 진주, 유럽의 등대라 불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3박4일 상품을 29만9000원에 선보였다.

이 상품은 강원도 속초에서 동춘웨리를 이용해 3월18일부터 격주 목요일 출발하는 상품으로 선박비용과 호텔 1박, 러시아 단체비자, 러시아 전통 바베큐요리 ‘사실렉’을 포함한 전 일정 식사 등이 포함돼 있다.

유류할증료와 속초, 블라디보스톡 항만세, 가이드팁 등 볼포함 내역을 전부 합쳐도 6만원선이며, 노쇼핑/노옵션 상품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매우 경제적이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극동지방의 중심지로 한국, 중국, 일본과 가까이 위치해 무역, 외교,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러시아의 과거와 미래, 자유와 속박의 역사가 섞이는 곳이다.

비록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일정이 1박2일로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으나, 구한말 한인들의 생활터전인 신한촌 및 기념비와 안중근 동상,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발착역인 블라디보스톡역, 중앙광장, 해양공원을 관광하고 러시아 재래시장과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등 일찬 일정이다.



또한 동춘웨리 4인1실을 이용해 30인 이상의 다인실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러시아비자에 대한 비용부담도 없어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좋은 기회다. 남장우 하나투어 유럽사업부 차장은 “블라디보스톡 상품은 업계 최초로 러시아 단체비자를 이용해 비자비용의 부담을 없애고 동춘웨리 4인1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경쟁력을 갖췄다”며, “이번 상품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을 널리 알리고, 여름에는 5~6일 상품도 출시해 블라디보스톡 관광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77-1233

이영석 기자 ttns@lycos.co.kr

창덕궁 사상 첫 야간개장 선착순 100명 한정 모객

경인년 정월대보름 창덕궁 달빛체험 소원빌기

롯데관광개발(주)이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사상 처음으로 야간에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롯데관광은 경인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7일 선착순 100명에 대해 창덕궁이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야간 공개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덕궁의 아름다운 밤풍경을 관광 상품화하고 궁궐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도입, 국내외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개장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며 참

가자 전원에게 정월대보름 기념 음식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어폰이 제공되며, 정원 대보름의 보름달 아래에서 중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 이생강 명인의 달빛대금공연을 즐길 수 있다. 20명당 1명의 가이드가 배정되며, 문화해설사가 동행한다. 참가비용은 입장료를 포함해 1인 3만원.

문의 : 1577-3700

이영석 기자 ttns@lycos.co.kr

인터뷰

- 수교 20년 맞아 ‘아로슬라브 올사.jr 체코공화국 대사 인터뷰

한국-체코는 공유 할 것이 많아

정치·경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도 중요해

한국-체코는 1990.3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외교적인 관계는 길지 않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관계발전을 이루어지는 국가다.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아로슬라브 올사.jr(Jaroslave Olsa, jr)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외교·통상·문화·관광 등 양국간 교류 내용 및 앞으로의 복안을 들어 보았다.

훤칠한 키에 전형적인 유럽 호남인 그는 “한국에서 최초 외국인 사망자는 체코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양국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라며 싱긋 웃었다.



- 한-체 양국의 수교와 양국 대사관은 언제 설립했나요?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 됐을 때부터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관을 운영했으며 본인은 2008년 부임 주한 체코 대사로는 3번째입니다.

- 한국-체코 간 인적 물적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외교관의 임무 중 가장 비중 있는 활동은 정치, 경제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소프트한 면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내셔널 브랜드에 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코도 공보·문화·예술·관광 등을 부각시키는 일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20년 전만해도 양국의 교역은 빈약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 한국 순입니다. 년간 교역량이 1억 5천만~2억\$이며 한국이 체코에 18년 동안 투자액으로는 최고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체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 받아 현지 공장을 설립했고, 두산은 크랑크 사후트(Crank shaft) 등 기술력을 제공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으로는 서울 마포에 캇츠 프라하 건물 3층에 체코문화원을 설립 유학, 비즈니스, 체코고유문화, 문학 등을 알리고 있으며 영어, 한국어로 된 책, 언어, 영화 등 체코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문화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유의 할 점은 프라하 대학에 한국어과가 생긴 것이 60년이 됐다는 점도 양국관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체코의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가 한국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코의 관광 매력은?

체코에는 이름난 관광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경치 등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크레온파트라’, 덴마크의 ‘헬릭’ 3종사’ 루마니아 ‘드라큐라’ ‘클라식 뮤직’ 등 공연물은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유럽전체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체코극장에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코국민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인은 예부터 여행가이며 무역가라 했습니다.

- 올해 관광분야에서 체코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있으시다면?

프라하에 거주 한국디자이너 신지연 작가 그로스 아트전이 한국에서 열리며, 체코디자이너 Rony Plesldhl 의 협동전시회가 체코문화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 1950년대 전쟁 후 북한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가 한-체 수교 20년 기념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 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한지 2년이 됐습니다. 한국국민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국-체코 양국은 공유 할 것이 많습니다. 단 체코사람이 한국을 자동차의 나라로만 본다든지, 한국사람이 체코를 아름다운 건축물만 연상시키는 것으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름다운 고유문화가 있드시 체코에도 체코만의 고유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1,000여명에 달하는 체코 거주 한국국민과 매년 7~8만명의 체코 방문 한국 국민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기수 기자 nk387@yahoo.co.kr

사이판 팜스리조트 허니문 시장 공략

무스타파 팜스리조트 총지배인 방한 판촉활동

사이판 팜스리조트가 올 봄 한국 허니문 시장을 공략한다.

무스타파 이사 팜스리조트 총지배인은 지난 8일 방한 기자회견에 이어 허니문 전문여행사들을 방문 올 봄 허니문 시장 공략을 위한 미팅을 가졌다.

팜스리조트가 위치한 파우파우 해변은 매우 넓으며 파도가 고요해 안전한 리조트로 평평이 나있으며 모든 객실이 오션뷰라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뷔페식당에서는 일식, 지중해식, 멕시칸, 인도, 시푸드, 중국식, 데파야기 철판요리로 매일 교체되며 칭량음료와 맥주가 무

한 제공되고 민속쇼 선셋 BBQ 디너에는 폴리네시안 민속 공연과 뷔페 스타일의 바비큐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팜스리조트는 이번 봄 시즌 동안 허니문 전문여행사의 제안으로 독점적인 허니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가을 시즌에 다른 여행사에도 파격적인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스타파 총 지배인은 “가족여행은 방학 시즌에만 물리는 한정된 시장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봄, 가을 비수기의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1, 2 월은 일본과 중국 여행객이 많이 방문해 객실이 포화상태였지만 3월에는 비교적 객



실이 여유가 있어 한국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설명했다.

팜스리조트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로 실시간 예약까지 되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3월에 오픈한다.

문의 : 팜스리조트 한국사무소 02-737-2666
류아연 기자 znhapiler@hanmail.net